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베트남 도로 물동량, 꾸준한 성장세 유지 전망



이슈페이퍼

1. 가트너의 2017년 상위 25대 공급망 기업 순위와 시사점



물류정책·산업동향

1. 국제해사기구(IMO), 제71회 해외환경보호위원회(MEPC71) 심의 결과에 따른 국제해운 규제 변화
2. Kuehne+Nagel社, 2017년도 2사분기 순이익 2.1% 증가
3.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로 미국 수출 위협
4.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 발효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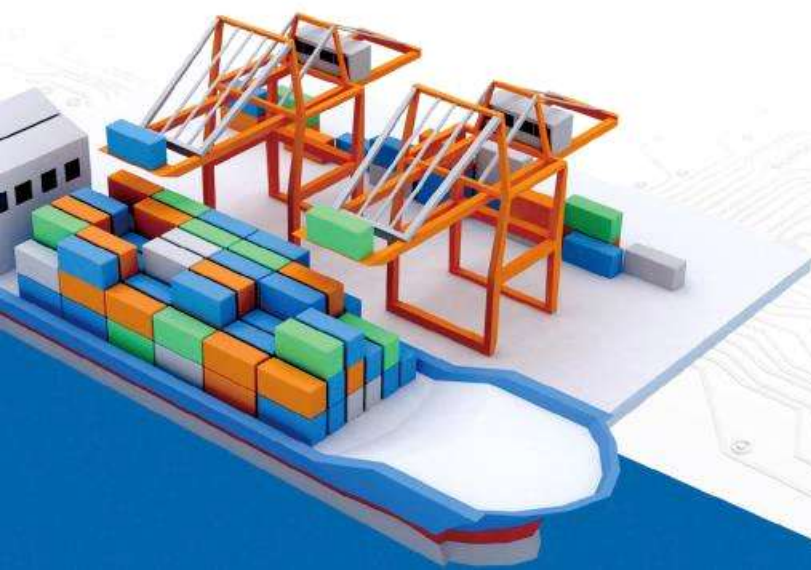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해외현지리포트

1. 남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물류 동향 보고서

명사 스피치

“...해외 진출 무역업체가 해운 등 현지 물류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신규 시장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청년 인력들에 화물주선업, 하역 및 공급사슬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현지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현지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운과 국제물류 분야에서 효과적인 글로벌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 있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2017. 7. 23. / 국제신문)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베트남 도로 물동량, 꾸준한 증가세 유지 전망

베트남의 도로 물동량 전망

(단위 : 천 톤, %)



자료 : BMI, Vietnam Freight Transport and Shipping Report Q3 2017, 2017.7

주 : 2016년도는 추정치, 2017-2021년의 물동량 및 증가율은 전망치임

- BMI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도로 물동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및 도시화, 제조업의 확장 등이 도로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음
- 신규 고속도로 건설, 관련 규제 정비 등이 증가세를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정부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다수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으며,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호치민을 잇는 167Km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 추진을 고려해 볼 때 도로운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도로운송에 대한 규제 재정비를 통해 신속성, 안정성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 BMI, Vietnam Freight Transport and Shipping Report Q3 2017, 2017.7

김동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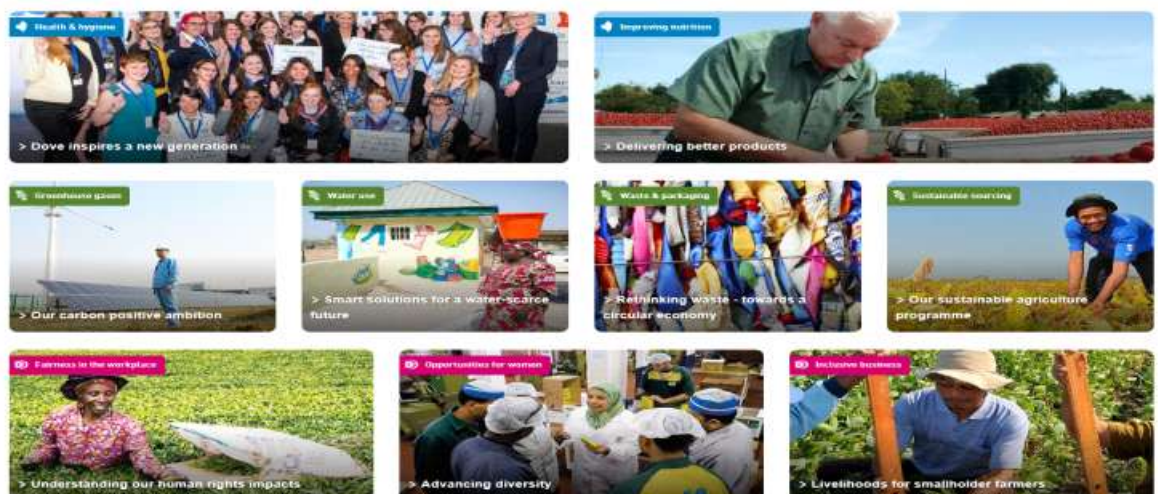
051-797-4913, kdong@kmi.re.kr

이슈페이퍼

가트너의 2017년 상위 25대 공급망 기업 순위와 시사점

- 세계적인 컨설팅기관 가트너(Gartner, Inc)사가 최근 2017년도 세계 공급망 상위 25대 기업 명단을 발표함¹⁾
 - 이에 따르면 유니레버(Unilever)사는 총점 6.39를 받아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고, 맥도날드사도 2위 자리를 유지함
 - 작년 6위였던 인디텍스(Inditex)사는 3위로,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사는 7위에서 4위로 올라섬
 - 한편 H&M은 순위 변동 없이 5위를 유지했으며, 25대 기업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는 작년 8위에서 25위로 순위권 안에 겨우 포함됨
 - 가트너는 과거 10년 동안 최소 7회 이상 상위 5위권에 속한 기업을 '마스터(masters) 카테고리'로 별도로 분류하여 조사하는데 올해에는 기존의 애플사와 P&G사에 이어 아마존사가 새롭게 포함되어 이번 가트너 공급망 상위 25대 기업 순위에서 제외됨
-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계 글로벌 기업인 유니레버사는 물류 측면에서 유럽 주요 물류 네트워크인 9곳의 물류센터를 택배형 접근 방식인 점 대 점 네트워크(point to point network)로 통합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평가받음
 - 유니레버사는 지속가능한 생활 플랜(Sustainable Living Plan)²⁾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항목에서 올해 10점 만점의 높은 평가를 받음

유니레버의 지속가능한 생활 플랜 예시



자료: <https://www.unilever.com/sustainable-living>(유니레버 홈페이지 참조).

1) <http://www.gartner.com/newsroom/id/3728919>.

2) 회사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환경 영향은 줄이고,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공헌은 극대화하는 것.

2017년 상위 25대 공급망 순위

순위	기업명	동종업계 평가 (169표) (25%)	가트너 평가 (38표) (25%)	3년간 누적 총자산 순이익률 (20%)	재고 회전율 (10%)	3년간 누적 매출성장률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구성점수 (10%)	종합 점수
1	Unilever	2,074	649	10.2%	6.8	1.9%	10	6.39
2	McDonald's	1,264	442	13.9%	174.5	-4.2%	3	5.27
3	Inditex	1,192	337	16.3%	3.7	12.0%	10	4.98
4	Cisco Systems	1,018	524	8.3%	13.5	0.8%	10	4.82
5	H&M	901	208	22.0%	3	12.5%	10	4.63
6	Intel	952	486	10.5%	4	4.6%	7	4.42
7	Nestlé	1,159	345	7.9%	5.1	-0.6%	10	4.1
8	Nike	1,290	207	16.2%	3.8	7.9%	6	4.07
9	Colgate-Palmolive	843	313	18.0%	5	-4.9%	6	4.03
10	Starbucks	926	143	20.3%	11.1	12.7%	4	3.8
11	PepsiCo	974	356	8.5%	9	-1.8%	6	3.67
12	3M	553	210	15.3%	4.2	-1.1%	10	3.54
13	Johnson & Johnson	878	269	11.8%	2.6	0.4%	7	3.5
14	Coca Cola Company	1,579	232	7.8%	5.7	-4.2%	4	3.46
15	Nokia	315	133	5.8%	5.6	46.3%	10	3.32
16	BASF	579	298	6.1%	4	-10.6%	10	3.21
17	Schneider Electric	546	325	4.2%	5.1	-0.3%	10	3.15
18	Wal-Mart Stores	1,312	225	7.5%	8	0.6%	3	3.11
19	HP Inc.	399	275	6.6%	9.8	-5.4%	10	3.06
20	L'Oréal	657	174	10.4%	2.8	5.1%	5	2.72
21	Kimberly-Clark	607	163	11.8%	6.5	-2.6%	5	2.68
22	BMW	681	129	3.7%	4.1	6.6%	10	2.62
23	Diageo	481	190	8.9%	0.9	-1.7%	7	2.57
24	Lenovo	498	223	1.5%	14	7.2%	7	2.5
25	Samsung Electronics	958	100	7.3%	15.1	-3.6%	4	2.46

자료 : <http://www.gartner.com/newsroom/id/3728919>

http://www.supplychain247.com/article/how_objective_and_accurate_is_the_gartner_amr_supply_chain_top_25

● 가트너사는 올해의 세계 공급망 상위 25대 기업을 발표하면서 3대 글로벌 트렌드를 선정했는데, 이중 첫번째 트렌트는 공급망의 디지털화임

- 지난 몇 년 동안 기업의 공급망 운영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음
- 선도 기업들은 디지털화를 통해 기존 제품의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디지털화 기술 중 가장 영향력 있고 인상적인 기술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센서, 클라우드 컴퓨팅 및 고급분석을 결합한 솔루션 등임
-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기능이 주류가 되면서 이제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을 포함한 인지 컴퓨팅 능력(cognitive computing capabilities)이 가장 진보된 공급망의 실험 대상임
- 공급망 퍼즐에서의 부분적 디지털화는 전체 공급망 생태계의 통일적, 실시간 관리를 가능케 방법으로 통합되고 있음

2017년 25대 공급망 기업 순위 산정 방법

	항목	산정방법
1	동종업계 및 가트너 평가 (Peer Opinion & Gartner Opinion)	각 패널들의 물리적인 순위산정에 대응하여 수요주도형 가치사슬 모델(DDVN) 적용
2	총자산 순이익률 (ROA)	$(2016\text{년 당기 순이익} / 2016\text{년 총자산}) \times 50\% + (2015\text{년 당기 순이익} / 2015\text{년 총자산}) \times 30\% + (2014\text{년 당기 순이익} / 2014\text{년 총자산}) \times 20\%$
3	재고회전율 (Inventory turnover)	2016년 매출원가 / 2016년 분기별 평균 재고
4	매출 성장률 (Revenue Growth)	$2015\text{--}2016\text{년 매출 변동} \times 50\% + (2014\text{--}2015\text{년 매출 변동}) \times 30\% + (2013\text{--}2014\text{년 매출 변동}) \times 20\%$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책무, 투명성 및 성과 등 CSR 측정지수
6	종합점수	$(\text{동종업계 평가} \times 25\%) + (\text{가트너 평가} \times 25\%) + (\text{총자산 순이익률} \times 20\%) + (\text{재고회전율} \times 10\%) + (\text{매출 성장률} \times 10\%) + (\text{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성점수} 10\%)$

자료 : http://www.gartner.com/technology/supply-chain/top25_methodology.jsp

<http://www.gartner.com/newsroom/id/3728919>

주 : 2016년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나 당해연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 중 가장 최근 것을 이용함. 모든 원 데이터는 종합점수 산정 전 10점 기준으로 통일함.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 순위는 다음 소수점 비교를 통해 결정함.

- 두 번째 글로벌 트렌드는 적응적 조직(adaptive organizations)과 능력(Capabilities)이라고 소개함
 - 디지털화 공급망과 상호 연관된 것은 기업이 가치 사슬의 변화에 좀더 양호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임
 - 공급망 선도기업들은 미래의 공급 관련 제약이나 고객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적응적 조직과 능력을 만들고 있음
 - 가트너의 부회장은 “보다 인상적인 공급망 조직은 플러그 앤 플레이 세그먼트에 기능의 변형을 결합할 수 있는 모듈식 공급망 서비스 모델을 만들거나 주문생산방식(Make-to-stock) 기반, 주문 사양 생산 대응(configure to order), 주문 설계 생산(engineer-to-order)의 제조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힘
 -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서로 다른 비즈니스 요구 및 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M&A 통합과 같은 활동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덧붙임

가트너의 7대 수요주도형 가치네트워크 우수성 요소 및 평가 기준



자료 : http://www.gartner.com/technology/supply-chain/top25_methodology.jsp

<http://advanchaing.wordpress.com/2016/06/24/insights-from-gartners-top-25-supply-chain-2016/>



- 세 번째 글로벌 트렌드는 건전한 생태계 개발 육성임
 - 선도 기업들은 공급망의 성공은 생태계의 건강성과 복지에 달려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인력 측면에서 가치 사슬을 따라 공급 업체, 파트너, 직원 및 고객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음
 - 또한 인재 확보 및 개발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소싱 및 고객 복리 지원에 중점을 두며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오염물 규제 및 기타 천연 자원 분야에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숙한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CSR) 실천을 하는데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기업 전략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

- 스탠 애로노우 부회장은 “전 세계 공급망 상위 25대 기업을 발표한 지 13번째가 되는 2017년은 첨단기술과 소비재 부문에서 새로운 교훈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인상적인 해”라고 밝힘
 - 또한 “오늘날 세계 공급망 기업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브렉시트(Brexit)와 현 미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공급망 설계와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혁신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공급망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공급망 수준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이 어려움
 - 세계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가 존재하듯이 국내 물류기업의 SCM 관련 역량 및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성공적인 SCM 평가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상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ex)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도달 가능한 개선 목표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 획득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내외 SCM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함

■ 참고자료 : www.gartner.com, 2017.7.25./ www.supplychain247.com, 2017.7.25.

www.advanchainge.wordpress.com, 2017.7.25. / www.industryweek.com 2017.7.25.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물류정책 · 산업동향

국제해사기구(IMO),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 심의 결과에 따른 국제해운 규제 변화

- 지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국제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제 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71)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였음
 - 이번 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삭감대책, 평행수 관리조약, 연료유 규제에 대한 부정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였음
- 본 회의에서는 IMO의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배출 삭감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실시하고, GHG삭감목표 및 대책 등이 포함된 전략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짐
 - IMO에서는 '13년 선박에서 배출되는 GHG삭감대책으로 신조선의 GHG배출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함
 - '16년 10월 MEPC70에서는 GHG삭감대책을 '18년 MEPC72에서 책정하는 것과 이를 위해 구체적인 스케줄을 설정한 로드맵을 결정함

IMO의 GHG 기준 책정 현황 및 전략구조 개요

단 계	주요 내용
1단계: 신조선 배출성능규제('13)	- 신조선의 CO ₂ 배출성능규제(하드웨어 대책) 개시
2단계: 연료소비실적보고제도('16)	- 선박에 운영실적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연료소비실적보고제도를 '19년 개시 예정 - 연료소비실적을 '가시화'하고, 기존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고효율 운항을 촉진
3단계: IMO GHG 삭감대책 책정('17)	- 향후 IMO에서 GHG삭감을 위한 포괄적 전략 책정 - '18년 IMO GHG전략 책정 예정, 이후 사회정세와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5년 주기로 수정 예정
GHG삭감 전략구조	1) 서문/도입/배경(배출시나리오 포함) 2) 비전 3) 목표 수준/기본 방침 4) 단기·중기·장기 대책 리스트(스케줄과 각국의 영향 등 포함) 5) 실시예 따른 장애요인 및 지원책(인재육성, 기술개발, 연구개발) 6) 전략개정에 따른 지속적 관리 7) 전략의 정기적 검토

자료 : IMO 홈페이지.

- 그리고 해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평행수 규제관리 조약을 최종 결정함
 - 선박의 평행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조약발효 후 7년 이내)하고, 관리방법을 규정한 매뉴얼 준비, 평행수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함
 - 평행수 관리에 대한 선박검사, 증명서 발급, PSC 등의 대상을 추가함



- 또한 선박의 SOx배출가스규제를 위반하는 연료유 부정사용에 대한 국제적 방지 대책과 규제적 합유의 국제규격화(ISO) 등에 대한 검토 개시를 합의함
 - '20년부터 선박에서의 SOx 배출기준치가 3.5%이하에 0.5%로 강화될 예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유 사용 및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화와 규제적합유의 국제규격화가 필요함
 - MEPC71에서는 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PPR: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의 신규 의제와 스케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연료유 부정사용 방지대책 및 적합연료유 국제규격화 향후 계획

시 기	주요 내용
'17년 7월	-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 · PPR신규의제 및 스케줄 심의 · ISO에 규제적합유 국제표준화 요청
'18년 2월	- 제5회 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PPR5) · 심의 개시
'18년 말	- 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 중간회의 · 대책안 심의
'19년 2월	- 제6회 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PPR6) · 대책안 책정
'19년 여름	- 제73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4) · 대책안 승인

자료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 참고자료 : imo.org, 2017.7.24. / mlit.go.jp, 2017.7.24.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Kuehne+Nagel社, 2017년도 2사분기 순이익 2.1% 증가

- 2017년 2사분기 스위스 Kuehne+Nagel(퀴네나겔, 이하 K+N이라고 함)사의 순이익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K+N사는 2017년 2분기에 225백만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성장 모멘텀을 유지함
 - 순매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동기대비 9.2% 증가한 47.4억달러를 기록함
 - 이는 올해 1월과 4월에 제약 물류회사인 Ferlito Pharma(이탈리아)와 Zet Farma(터키)를 인수하는 등 사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임
- K+N사는 IT 기반의 선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물류기업 중 하나임
 - 1890년 독일 브레멘에서 해상화물 포워딩 회사로 설립된 이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상, 항공, 육로운 송의 각 분야에서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물류(3PL) 기업임
 -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3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만 7만명이 넘음
 - 또한 국제운송 화물의 규격화, 창고 및 운송관리 시스템과 RFID의 개발 등 IT 기반의 선도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한편 올 3사분기에는 항공 화물 및 부패하기 쉬운 화물의 운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 예정임
 - 7월 초에는 홍콩의 Nakora Insurance Brokers Ltd(나코라 보험회사)를 인수할 예정임
 - 또한 케냐의 부패하기 쉬운 화물 운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업계의 선두기업인 Trillvane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함
 - Trillvane사는 금년 7월 16일 LA의 항공화물 운송업체인 Commodity Forwarders Inc를 인수한 바 있음
 - K+N사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화물의 운송시장은 잠재력이 크다. Trillvane의 인수를 통해 케냐에서 K+N사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힘
- K+N사의 CEO인 Detlef Trefzger씨는 “올 하반기에는 물량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분야별 솔루션의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www.americanshipper.com, 2017.7.18.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로 미국 수출 위협

- 중국은 고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중국에서는 더럽고 위험물질이 포함된 고형폐기물이 비가공된 자재로 쓰이기도 함
 - 중국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형폐기물 수입을 조절하고 매우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는 수입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올해 말부터는 더 이상 고형폐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통보함
 - 중국은 수입금지 목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고려중이라 함
 - 세계무역기구는 7월 20일까지 중국이 제안한 수입 금지사항이 법률이나 규칙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거쳐 받아들일 예정임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특별조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존재함
- 폐기물 수출이 미국 수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임
 - 미국의 상위 5개의 수출업체 중 3개 업체는 종이 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음
 - 또한 재활용품의 수출이 상위 100개의 수출용품 중 30%를 차지함
 -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형폐기물은 미국 전체 수출의 8.2%를 차지하며, 대략 100만 TEU의 규모임
 - 중국이 통보한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하여 미국은 강철과 제철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비산재, 금속 또는 그 화합물을 포함한 잔재물)을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음
- 재활용 산업협회(The 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는 중국의 정책에 반대함
 - 현재 중국이 통보한 금지 조항이 발효된다면, 미국의 수출업자가 작년 수출한 물품 중 77.8%가 목적지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폐기물 수출업자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컨테이너 이용 실적도 줄어들어 중국의 빈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출 시장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수출을 위해 대기 중인 폐지



자료: www.joc.com

■ 참고자료 : www.joc.com, 2017.7.24.

박상원 연구원

051-797-4919, psw6745@kmi.re.kr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 발효가 해운선사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선박평형수 배출이 연안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17년 9월에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C: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을 발효시킬 예정이었음
 - 선박평형수는 선박이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입하는 바닷물로, 선박이 출항지에서 주입한 물을 화물을 양하하는 항만 연안에 버리게 됨에 따라 출항지에 서식하던 해양생물 및 오염물이 그대로 배출되어 연안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호하기 위해 IMO는 원양항해를 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설치를 의무화함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의 개념도

(1) 양하시 : 평형수 주입(유해수중생물 유입)



(2) 경항상태 운항시 : 평형수이동



(3) 적하시 : 평형수 배출(살아남은 유해수중생물 배출)



(4) 만재상태 운항시 : 평형수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 그러나 금년 9월 8일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가들의 요청에 의해 2019년 9월로 2년 유예가 결정됨
 -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가 BWTS 탑재를 위한 조선소 도크 부족, 자금 수급 어려움 등의 이유로 도입 유예를 요구하여 일부 수용함
- 협약이 발효되면 신조선은 반드시 BWTS를 탑재해야 하며, 기존 선박은 정기검사증서 중의 하나인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IOPP) 첫 갱신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BWTS를 설치해야 함
- 해운선사 입장에서 기존 선박에의 BWTS 탑재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향후 폐선 및 신조선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선박에 BWTS 탑재시 약 100~200만 달러가 소요되어 해운선사는 노후선의 BWTS 탑재보다는 폐선이나 신조선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IMO가 모든 선박으로 하여금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수심 200m 이상 수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하거나 BWTS 설치를 통해 처리 후 배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한중일 항로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수역이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참고자료 : lloydslist.com, 2017.7.7. / maritime-executive.com, 2017.7.7.

이경미 인턴연구원

051-797-4915, kmlee@kmi.re.kr

해외현지리포트

남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물류 동향 보고서

●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동향 및 전망

- 온라인 주문의 편리성 증대와 더불어 중국에서 해외 제품에 대한 관심(제품에 대한 정보 및 지식 증가)이 늘어남과 동시에 중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모든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갖게 됨
-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해 알리바바(Alibaba)와 액센츄어(Accenture)가 공동으로 전망한 바에 의하면, 중국은 2020년까지 온라인에서 제품을 사고 파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며, 온라인 판매자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총 가치는 9,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eMarketet의 최신 리테일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미국의 제품판매시장 규모는 4조 8,23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중국의 판매시장 규모는 4조 8,860억 달러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며 세계 최대의 제품판매 시장이 되었음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해외 무역을 발전시키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Belt and Road (B&I) 이니셔티브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국제 기업들에게 급증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제품 판매를 용이하게 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이러한 플랫폼은 반드시 중국 내에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님
- 2020년까지 중국 인구의 1/4는 해외 사이트 및 3자 기업들(third parties)을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게 될 것임
- 중국 상무부에 의하면, 2016년 중국에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6조 5천억 위안(1조 200억 달러)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중국 해외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금액임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30%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에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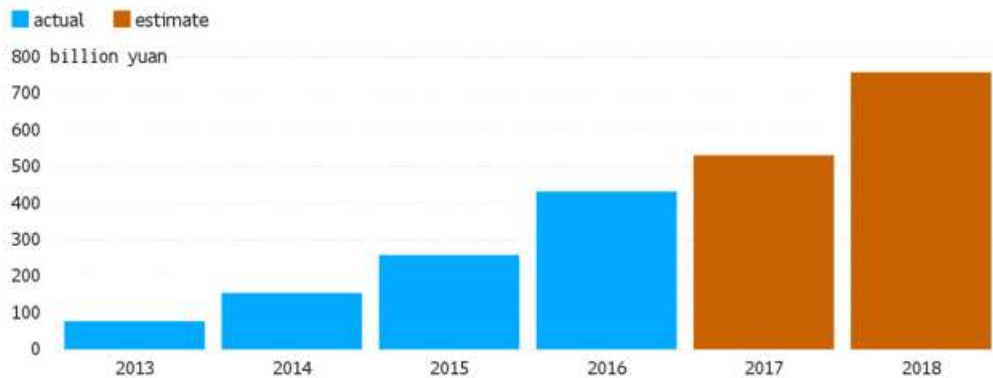
● Forrester의 2022년까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

- 중국은 2022년까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20%의 성장을 보이며 6,2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Forrester 연구소는 전망함
- Forrester 연구소에 의하면, 중국의 주도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2020년까지 20% 증가한 6,2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함
- 향후 5년 동안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성장은 중국 내에서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구매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물건을 찾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역시 (전자상거래 결제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페이팔 홀딩스(Paypal Holdings Inc.)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크로스보더 온라인 쇼핑의 2/3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류, 전자기기 제품류는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매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 Bloomberg의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망

- 상하이에 위치한 맥킨지(McKinsey & Co.)의 인터넷 및 디지털 부문 분석가 Xia Chenan씨는 새로운 규제에 의해 제한되지만 않는다면, 향후 5년 이내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은 현재의 3배 규모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는 총 전자상거래 시장의 1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맥킨지와 iResearch에 의하면, 중국의 크로스보더 채널은 2018년 43%의 성장을 보이고, (크로스보더를 이용한) 제품의 금액은 7,58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림 1 참고)
- 또한 총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6조 5천만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온라인 수입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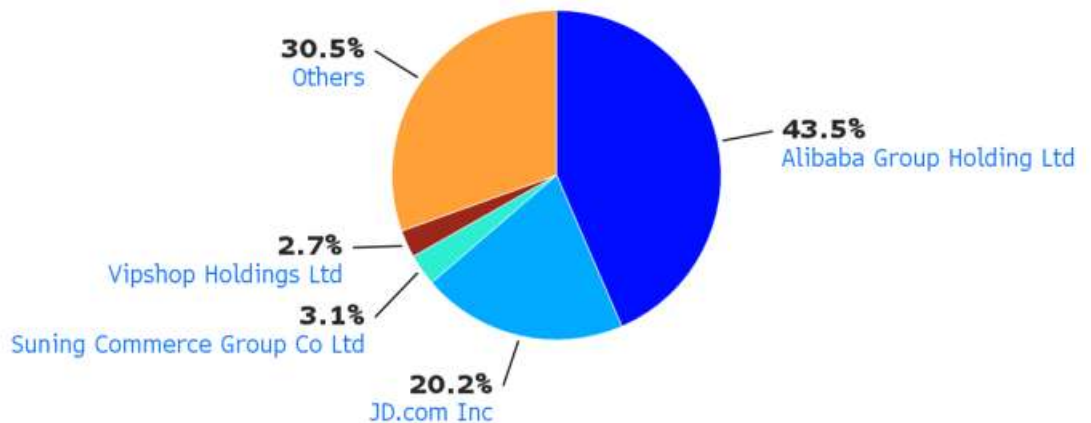


원자료: iResearch, McKinsey

자료 : Bloomberg Markets (www.bloomberg.com)

- 한편 중국 온라인 리테일 시장에서 알리바바(Alibaba)와 JD.com이 선두 기업으로 나선 가운데, 이 두 기업은 전체 중국 온라인 리테일 시장의 약 63.2%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내 온라인 리테일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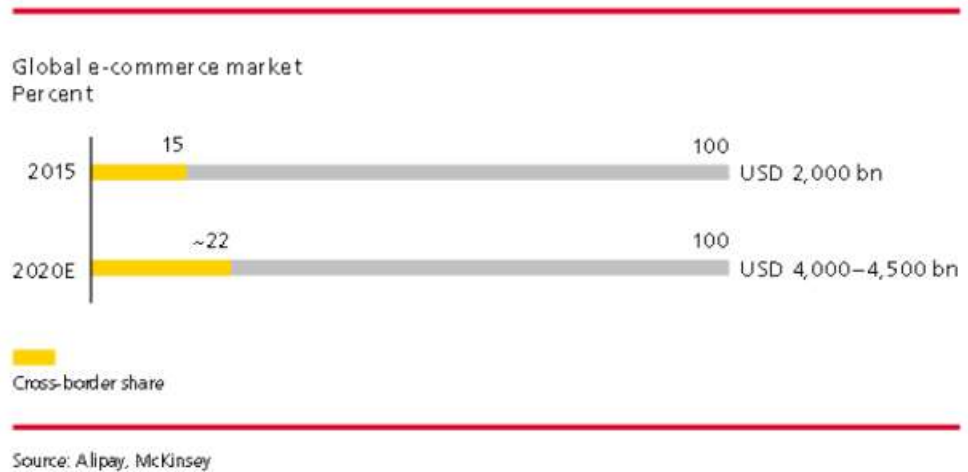


원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 : Bloomberg Markets (www.bloomberg.com).

- 중국 시장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 선두 기업들의 사업 동향: 알리바바, 아마존의 사례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 및 전망



자료 : seekingalpha.com.

- 아태지역의 전자상거래 성장세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 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요인으로는 중국 국민들의 수입 증대, 중산층의 성장 및 중산층의 해외 제품에 대한 인지도 증가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알리바바는 현재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향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
- 알리바바(Alibaba), 중국의 3억 중산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사업 역량 강화
 - 중국의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Alibaba Group Holding)는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해외 제품들을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자상거래 무역 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 알리바바의 글로벌 사이트인 Tmall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는 2017년 6월 말까지 수입될 예정이며, 중국과 미국은 최근 중국 시장으로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체결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Gateway 2017'라는 미국-중국 소상공 컨퍼런스에서 알리바바의 Tmall 플랫폼을 통해 'Driscoll's'와 'Chicken of the Sea'라는 두 기업과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는 물론 미국의 신선한 딸기와 고급 해산물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서 언급한 컨퍼런스에서 미시간주의 Brian Calley 부지사는 미시간주(state of Michigan)가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Tmall과 함께 현지 행정부에 의해 지정된 해외 지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디트로이트에 있는 전문 과자점인 Holy Cannoli's의 Cathy Schulte 사장은 “디트로이트주 정부가 우리에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주었으며, 4개월 후에는 우리의 과자류를 Tmall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일반적으로 중국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해외 소규모 사업자들은 물류, 지급 방법, 언어, 데이터 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고 베이징의 한 업계 전문가인 Liu Dingding씨가 언급함
- Liu씨는 또한 거대한 중국소비시장으로의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소규모 사업자들과 상인들을 위해, 알리바바의 물류 플랫폼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Liu씨는 최근 해외 물류기업들과의 합병 및 협력 덕분에, “알리바바는 해외 리테일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비용, 효율, 관세 관련 사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인 ‘차이냐오(Cainiao)’를 설립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알리바바는 최첨단 지불 기술인 Alipay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보세수입물류 관련 차이냐오 네트워크(Cainiao Network)



자료 : www.alizila.com.

- 원스탑 물류서비스(One-stop Logistics Services): 차이냐오 데이터 플랫폼은 수입 물류체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와 연결되어, 모든 절차에 걸쳐 수화물 추적 가능
- 재고 할당 (Allocate inventory): 해외 상인들에게 창고에 재고 현황 파악 및 배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차이냐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 예측 서비스를 제공
- 빠른 통관 (Swift customs clearance): 빠른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차이냐오는 Tmall과 Alipay와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 교류
 - 알리바바는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63개 국가로부터 생산된 3,700여개 분류의 14,500개 브랜드들을 중국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이 중 80%는 Tmall International을 통해 중국으로 처음 진출하였음
 - 올해 6월 18일, '618'로 불리는 쇼핑축제에 Tmall International에서 판매된 물량은 전년에 비해 5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Natural Balance 애견 사료 2만 봉지는 5분 만에 매진되었고, 스킨케어 제품과 애플은 30분 동안 50만 개가 판매되었음
 - 파나소닉 헤드드라이어와 오메가 시계, 호주 오토밀도 단시간에 매진된 것으로 나타났음

AliExpress 수출 과정 관련 차이나오 네트워크(Cainiao Network)

AliExpress Export Logistics



1 Big data-driven Global Smart Delivery Platform enables order sorting based on multiple factors including cost, time-efficiency and services, helping merchants choose the best delivery firm and route.

2 The platform connects the data center to partners throughout the cross-border logistics chain, tracking the package every step of the way.

자료 : www.alizila.com.

- 원스탑 물류서비스(One-stop Logistics Services): 빅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 운송 플랫폼으로 비용, 시간 효율,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운송품을 분류하고, 화주들로 하여금 최적의 운송기업 및 루트를 제공
- 차이나오 글로벌 스마트 운송플랫폼(Cainiao Global Smart Delivery Platform; GSDP): 크로스보더 물류체인을 통해 파트너 데이터센터와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든 절차에 걸쳐 수화물 추적 가능
 - 알리바바 잭마 회장은 “중국 내에는 현재 3억의 중산층 소비자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의 고급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음
 - 중국의 중산층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5년 동안 중산층 인구는 6억 명이 되어 고급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에서 온라인 결제가 편리해지면서, 온라인 쇼핑은 중산층의 주된 지출방식이 되고 있음
 -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플랫폼 상에서 연간 5,500억 달러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신선 식품(fresh food)에 대한 수입은 운송 효율성과 포장에 높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알리바바는 이러한 운송 및 포장 능력 극대화로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 내 막대한 수요에 대비할 예정임
 - 알리바바의 목표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규모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과 사업 파트너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결제 및 물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잭마 회장은 언급하였음
 -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중국 내 많은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기업들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임



● Amazon, 크로스보더 중국사업 강화

- 카이신(Caixin)에 의하면, 아마존은 작년 한해에만 온라인 총 판매액이 3,780만 달러에 이르는 중국 시장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프라임 로열티 프로그램(Prime loyalty program)'과 같이 성공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중국 크로스보더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장 조사 연구기관인 iResearch는 작년에 4,100만 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이용했으며, 2018년까지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구매자가 작년의 두 배에 이르는 7,8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 현지 시장 연구기관인 Analysys사(社)에 의하면, 중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크로스보더 구매액은 작년 4/4분기에 957억 위안(140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금액이라고 발표함
- 또한 Analysys사(社)에 의하면, 아마존닷컴(Amazon.com)은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크로스보더 부문에서 6.6%라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 상품 사업의 19%를 담당하고 있는 업계 선두기업인 알리바바(Alibaba)에 이어 (크로스보더 점유율) 6위를 기록하고 있음

■ 참고자료 : 중국 국무원(THE STATE COUNCIL, english.gov.cn) 2017.5.8. / marketwatch.com 2017.7.5. / bloomberg.com 2017.5.19. / seekingalpha.com 2017.6.13. / globaltimes.cn 2017.6.22. / chinaeconomicreview.com 2017.6.23.

신성호 해외현지 에이전트
oxygen0070@gmail.com